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수사기간·인력 확대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 그날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청년 등의 법적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통령령안,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작된 내수 회복세를 추석 연휴와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견검사 내란·김건희특검 70명, 채해병특검 30명으로 기간, 30일씩 2회 연장 가능...내란특검 1심 중계 의무화 김총리 “추석 연휴, 경주 APEC으로 내수회복 모멘텀 살려야”

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 10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에 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

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신속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농수산식품 소비촉진행사에 참석한 김 총리는 “민생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회복”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부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김 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부적으로 전폭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호국영웅·산재유족에 추석선물

대통령실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이 의지 대통령 시계에 담아”
“우리의 사회 온기가 가득하길... 함께 사는 세상 위해 힘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지지층의 관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 시계’도 선물 명단에 포함돼 모습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추석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전국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다. 대통령 시계는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다. 다이얼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글씨가 금색으로 기재돼 있다. 시침·분침은 금색, 세침은 은색을 띤다.

대통령실은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라며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에 매진하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 명절을 맞아 준비한 선물 모습. 사진=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제공

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8도 수산물은 서해바다 보리새우, 전북 고창 갯벌 첫잎염, 동해덕장 건오징어, 강원도 돌미역 등 우리 바다의 주요 특산물로 구성됐다. 쌀은 올해 3월 대형 산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지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따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홍준표, 국힘 저격 “신천지·통일교·전광훈의 꼭두각시 정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진정한 국민의 힘을 겨냥해 “유사종교집단의 교주들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며 “이들 정당이”

23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의 골격은 지도부이고 뼈와 살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뼈와 살에는 신천지·통일교·전광훈 등 유사종교집단 세력이 침투해 주요 정책, 지도부 선출, 당선후보 선출 등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통적인 주류 책임 당

원들은 그 힘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부패한 기득권 주류세력, 유사종교 집단, 극우 유투버들의 세상이 된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환골탈태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유사종교집단과 절연하고 당원명부를 세척해야 하고 부패한 기득권 주류세력과 극우 유투버들을 퇴출시키는 일”이라며 “이미 그 세력들이 당의 골격과 피와 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민주 “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사후에 인지... 30일 그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사전에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3일 비공개 원내회의에서 “법사위로부터 사전에 공유받은 것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가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된 사안이나냐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없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 당 대변인·원내대변인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계획대로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답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시계회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지만 여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됐다.

/뉴시스

국민 90%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 발급... 추석 대목 만들까

가족과 식비, 생활비 등 1차와 유사하게... 추석 앞두고 “선물 사거나 지인과 외식”

지난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다.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다는 ‘식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23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구원 김광호(32)씨는 “내일 신청이다. 은행 앱에서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곧 추석이라 선물을 사거나 고향에서 외식비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비사 박태열(55)씨도 “당연히 가족들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싶다”며 “아마 1차 때와 똑같이 생활비나 식비에 쓸 것 같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조한범(53)씨도 “1차 때 가족과 외식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족 외식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직장인 한예지(26)씨 역시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니까 가족들과 외식할 때 쓸 것 같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지인을 만날 때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식비’에 사용하겠다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31)씨는 “1차 때는 주로 가족, 지인과 저녁을 먹는 데 사용했다”며 “이번에도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식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수산시장에 갈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직장인 김소연(26)씨도 “1차 소비쿠폰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렸다”며 “이번에는 계속 못 가본 전통시장 안 칼국수집을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사용처를 정해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예정이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뉴시스

진도아리랑몰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Organic & nature

Fresh food 신선한식품

www.jindoarirangmall.com

고객센터 061. 542. 9631